

#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 확대 지정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전주시, 5개소 추가 신규 지정... 이용 편의 서비스 제공기관 총 18곳으로 늘어

전주시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활동 보조 제공기관 5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2일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업수행 능력과 인력관리, 사업계획

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활동지원기관 5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신규 지정 기관은 △가온길 △나들목 △다온복지센터 △동암 △장애인 인권연대 등 5곳으로, 이들 기관은 지난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전주시에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기존 13개 기관을 포함해

장애인 이용 편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총 1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은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현재 1833명이 활동 보조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활동 지원 서비스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

용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과 보호자는 전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팀(063-281-2444)으로 문의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신규 추가지정으로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익기 기자

### 노송동에 돌봄 공간 6호점 신규 조성

전주시는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노송동에 열린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6호점을 신규 조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문을 연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6호점은 지난 1월 공동육아나눔터 5호점(덕진점)이 문을 연 지 3개월 만에 조성됐으며,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이 실시한 민관협력 공모사업에 선정돼 8400만원 상당의 공간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기자재 지원을 받아 조성됐다.

노송 공동육아나눔터는 서노송 서로블 플랫폼(안산구 물왕빌1길 11-36) 1층 116㎡ 공간에, 프로그램실과 실내 놀이터, 수유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제공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공동체 구성·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향후 맞벌이 등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양육지원과 저출산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평가 받는 공동육아나눔터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서신동 △에코시티 △혁신도시 △삼천동 △덕진동 △노송동 등 총 6곳(안산구 3곳, 덕진구 3곳)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운영해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3만 명 정도의 아동과 보호자가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했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의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더욱 힘을 예성"이라며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익기 기자

## 제44주년 5·18민중항쟁 전북기념식 개최

### 44주기 이세종열사 추모식도 진행... 5월항쟁 첫 희생자 국가 공식인정

17일 오후 5시 전북대학교 이세종광장에서 '제44주년 5·18민중항쟁 전북기념식과 44주기 이세종열사 추모식'이 열린다.

올해 기념식은 이세종열사가 5월항쟁의 첫 희생자로서 국가 공식인정이라는 점이 매우 뜻 깊은 해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강성희 국회의원, 이상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시·군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이석환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심영배 전북5월동지회 회장, 양모용 전북대학교 총장, 정태현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최병선 전북대학교총동맹회장 등 각계 각층의 대표와 도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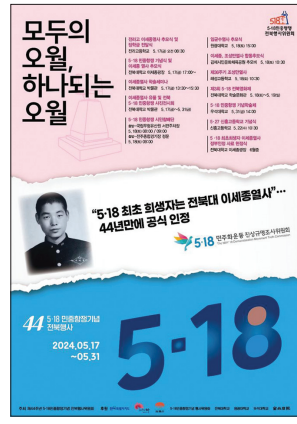
이어지는 문화공연에서 이세종 열사의 5·18민중항쟁의 첫 희생자라는 뜻 깊은 날을 기념하여 '다시 살아 하늘을 보고 싶다' 김성숙씨가 자작시낭송을 할 예정이다.

김성숙씨는 2003년 이세종추모비 건립 당시 '다시 살아 하늘을 보고 싶다'는 문구를 작성하여 매우 큰

울림이 있었다. 또한 44년전 전북대학생회관 농성장에서 잡혀 고초를 당하는 여학생중의 한 명이였다.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지속적으로 꽃피우고 계승하는 전북대학교 '이세종 장학금' 신설 기념식에 이어 44주기 이세종 열사 추모식이 거행된다. 특히 올해 추모식부터는 '이세종 장학금'이 모교 전북대 재학생에게 전달된다.

또한 2010년부터 모교 전라고 재학생에게 전북5월동지회에서 매년 이세종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여 올해부터 전라고총동창회



44주기 이세종열사 추모식 행사 포스터. 장학재단에서 매년 300만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김익기 기자



전주 덕진수영장이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마치고 재개장한다.

## 전북 4개 로타리클럽, 확대 피해 아동 후원금 전달

### 서전주·새전주·전주제일·진안로타리클럽, 4100만원 상당 기탁

전북 4개 로타리클럽이 확대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나섰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총재 이기운) 소속 서전주·새전주·전주제일·진안 등 4개 로타리클럽은 16일 확대 피해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전주시에 3만 달러(약 41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성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차차기총재, 김민수 서전주로타리클럽 회장, 김성택 새전주로타리클럽 회장, 신중옥 진안로타리클럽 회장, 최성태 전주제일로타리클럽 총무 등 4개 로타리클럽 회원,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지역 본부장, 최은희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미선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4개 로타리클럽의 후원금은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확대 피해 아동 심리치료사업을 통해 피해 아동의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심리 안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제로타리 3670지구 내 4개 로타리클럽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후원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봉사단체로서 모범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시는 단일 시·군 중 최초로 2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덕진·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확대 피해 아동 및 가족의 치료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국제로타리 3670지구 소속 서전주·새전주·전주제일·진안 등 4개 로타리클럽은 16일 확대 피해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전주시에 41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김민수 서전주로타리클럽 회장은 이날 "힘든 일을 겪은 아이들이 상처를 잘 극복하고, 밝게 성장하길 바라는 회원들의 마음이 모였으며"면서 "앞으로 도 지역사회에 꾸준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역의 아이들

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제로타리 3670지구 4개 클럽 모든 회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모든 아기가 행복한 전주시가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익기 기자

## 전주시설공단, 덕진수영장 20일 재개장

전주 덕진수영장이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마치고 재개장한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덕진수영장은 20일 다시 문을 열고 이용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우선 자유 수영 이용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수영 강습은 6월부터 진행된다. 월 정기권 회원도 6월부터 받는다.

덕진수영장은 지난해 12월 25일 휴장에 들어가 5개월간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해 왔다.

보일러와 배관, 특고압 설비 등 노후 기초 설비를 교체하고 탈의실과 샤워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건축과 전기, 기계 등 시설 전반에 대한 대규모 환경개선 공사다.

공단은 조속히 문을 열기는 바라는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예정보다 40여 일 일찍 공사를 마무리했다.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강습 졸업반 제도를 도입하고, 아쿠아로빅 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등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이번 시설 개선 공사로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덕진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욱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익기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논란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증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태 중심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